

## 2022 년 7 월 3 일 “예수님의 비유(4) 누룩” (마 13:33)

겨자씨 비유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 말해주는 누룩 비유를 살피겠습니다.

### [1] 누룩의 용례와 의미

(1) 출 12 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전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유월절(유대력 1.14.) 후 7 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무교절).

(2) 레 2:11. 소제(곡식제물)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상징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누룩 같아서 부풀리게 만듭니다. 더 좋게 만들고 더 많이 보이게 하고 싶어합니다. 선거철에 후보자들이 하는 말들과 같습니다. 아마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위선, 속임 같은 죄의 속성에는 자기를 부풀려 보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있으면 있는 그대로, 슬프면 슬픈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 마 16:6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 고전 5:6 ‘적은 양의 누룩이 빵 반죽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으로 부풀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수치를 부풀립니다. 얼마나 많이 했고 빨리 한 것에 대해 신화적인 동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누룩이 부정적 의미에서 부풀리는 의미를 말했는데, 오늘 비유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 [2]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통로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 나타난 예를 든다면,

1.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모함,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누룩과 같은 영향을 끼쳐 하나님 나라의 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 사무엘 시대도 그러합니다. 혼란의 사사시대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친밀함이 누룩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브닌나에게 당한 고통과 흘린 눈물, 그리고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쳐진 헌신의 누룩이 이스라엘 역사에 미스바 세대의 회개를 이끌고 꽃 피웠습니다.

3. 이 땅에서 획기적으로 부풀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세상의 좋은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과 하늘의 은사를 받아 강력한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누룩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순종과 피땀을 담은 기도,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맺음>**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소량의 누룩을 넣은 빵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헌신과 순종,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누룩이 되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왕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하나님께서 무교절 빵과 제사 소제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2.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누룩의 영향을 보고 경험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